

공자가 노(魯)나라 사제(蜡祭)에 손님(賓)으로 참석하였다. 제사를 마치고 성문(城門)의 누대(樓臺)에 오르며 갑자기 공자가 길게 탄식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때 옆에 있던 제자 자유(子遊)가 물었다.

"선생님께서서는 무엇을 탄식하시는지요?" 공자가 대답했다.

"큰 도(道)가 행해지는 세상은 천하를 모두 공유(公有)한다.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관직을 맡겨 신의(信義)와 친목을 다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홀로 자기의 어버이만을 모시지 않으며 홀로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노인들은 편안히 여생을 보낼 곳이 있으며,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가 있고, 어린이에게는 모두 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과부와 홀아비, 부모 없는 고아, 자식 없는 외로운 이, 그리고 불치의 병에 걸린 이로 하여금 다 부양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남자는 일정한 직분(職分)이 있고 여자는 돌아갈 가정이 있다. 재물이 땅에 버려지는 것은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만 사사로이 독점하려 하지 않으며, 힘은 자신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지만 자기만을 위해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음모가 없고 도적이 생기지 않아서 집집마다 바깥 대문을 잠그지 않는다. 이런 사회를 대동이라 한다.(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 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爲大同)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 실린 공자의 이 말씀은 그의 제자 자유(子遊)에게 당시 사회의 어지러움을 탄식하며 자신이 동경하는 이상사회에 대한 언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자가 주장한 '대동(大同)'은 만인의 신분적 평등과 부(富)의 공평한 분배, 인륜의 구현을 특징으로 하는 유교의 이상사회, 즉 인간이 천지(天地)는 물론 만인(萬人)과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곧 '천하위공(天下爲公)'이라 하여 온 세상이 일반 백성들의 것이라는 뜻으로, 즉 모든 사람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국가를 모든 사람들이 빠짐 없이 참여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이다. 이 대동이라는 말은 〈장자(莊子)〉나 〈여씨춘추(呂氏春秋)〉에도 보이지만 그 개념이 정립된 것은 〈예기(禮記)〉의 '예운편(禮運篇)'이다.